

지역 매아리

정읍산림조합, 제7회 늘푸른 장학금 수여

지난 23일 정읍산림조합은 제7회 '늘푸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들은 지역 인재육성과 아울러 학업 생활이 우수하고 조합에 남다른 애착심을 가진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선발하였으며, 총16명(고등학교생 1명, 대학생 15명)의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가졌으며,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각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 7회째로 그동안 선발된 장학생은 총117명이다.

정읍산림조합은 "올해도 장학금 신청자가 많아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아쉽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힘이 되어주고 입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 인재육성에 밑거름이 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기쁘고 미래의 인재에 투자하는 것만큼 보람 있고 값진 일은 없는 것 같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속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수산물의 성수기 홍수 출하를 조절하여 가격인정과 품질저하 예방으로 상품성 향상 및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한 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수산물저온저장고 지원 총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1대당 600만원씩 1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준은 컨테이너 또는 관냉식으로서 9.6㎡이상이어야 하며 지원조건은 보조금 80%, 자부담 20%이다.

사업대상자는 연구단체,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어업인 등이며 이달 초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 신청자 중 사업 타당성,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에 의해 지난 22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확정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담사르습지로 지정된 청정갯벌이 있는 지역 수산물의 저장능력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신선도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 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소통과 공감의 교육 강화”

서거석 도교육감 예비후보 “성추행 등 사건·사고 재발 않도록 대책 수립”



“불통과 오만 꼴찌교육의 구제 제 연장이나”, “소통과 겸손, 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으로 교체나” 침체한 전북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북대 제 15대, 16대 총장을 역임한 전 서거석 총장이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26일 부안수협 회의실에서 부안군출입 기자들과 기자회견에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의 눈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겠다” 교육원

모두 자긍심을 갖는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만들어 소통과 공감의 교육,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서거석총장은 부안이 '교육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한 부안으로 부안에서는 여고생 성추행 사건과 중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부안 교육이 큰 위기를 겪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상체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 총장은 “부안초등학교 관악부는 전국적으로도 유명,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33회 연속 금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며 “중·고등학교와 연계가 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악부를 창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총장은 부안에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부안 마실 축제'가 있다며 지역축제와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 부안의 높은 교육열에 불을 댕겨 기초학력과 일반고 학력, 더욱 증진시켜 기초학력 발달로 더 이상 학습에서 소외 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안=이옥수기자

농업 새로운 활력 '삼락농정 비전' 실현 총력

정읍시,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 위한 사업 계획 밝혀

정읍시는 올해 내수면 양식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의 핵심 농정시책인 '삼락농정 비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삼락농정의 목표 비전은 보람 찾는 농민, '재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며 이를 실현시킬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을 밝혔다.

먼저, 시는 내수면 양식어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민물고기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억6000만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양식에 필요한 수차와 펌프, 수중모터 등의 기자재와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제 및 수질 정화제는 물론 토질

개선용 황토 등을 지원한다.

또 노후화된 양식시설 현대화와 개보수 청정 지하수 개발과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또 수산자원 증식과 낚시레저 자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자체예산 7500만원을 투입해 수산종묘 매입 방류와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토속 어류(메기, 다슬기, 붕어, 동자개 등 경제성 어종)의 치어 약 86만 마리로 방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친환경 화장실 개선 등을 통해 유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산 전문지 보급과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수산업 경영안대회 참가 지원 등 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은 내수면 양식업에 필요한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업인 맞춤형 시책 사업들을 발굴·추진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읍을 전북도 내수면 어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지역 내수면 양식장은 37.5ha이다. 이는 전국(851ha)의 4.4%이, 전북(235ha)의 14.1%를 점유(전북 2위)하는 비율이다. 지난해에는 102여가에서 메기와 미꾸라지, 동자개, 뱀장어 등 연간 565톤과 종묘 360만마리를 생산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봄·가을 꽃 축제 준비 만전

고창군 공음면에 위치한 학원농장은 2004년 4월 고창청보리밭축제와 9월 메밀꽃잔치를 개최한 이래 매년 봄과 가을에 경관농업 축제를 개최해 어느덧 올해 열다섯 번째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학원농장은 올해도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지난해 가을 25만평의 농장에 보리와 유채를 심어 놓고 봄을 기다리고 있다.

봄철 대표 축제인 '고창청보리밭축제'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2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학원농장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 정비와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알찬 축제 등 빈틈 없는 손님맞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청보리밭축제는 봄이면 꼭 가봐야 할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6월 초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약 2만평의 '꽃 경관지구'를 설정해

메밀꽃 해바리개, 백일홍 등 다양한 꽃을 심어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100일간(7월21일~10월28일) 꽃잔치를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농장을 7000평씩 9개 구역으로 나누어 7개 구역에는 해바리개와 메밀꽃 심고, 2개 구역에는 백일홍과 코스모스를 심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동학 마라톤대회 성료

정석근·군순희씨 풀코스 남녀 1위

제24주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지난 25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동학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을 널리 알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본 고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임은 물론 송고한 혁명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육상연맹이 주관한 대회에는 풀코스 등 4개 종목에 모두 3500여명이 참가해 정읍종합경기장을 출발 종목별 코스를 따라 달렸다.

풀코스 남녀 1위는 정석근(2:35:10)씨와 권순희(2:58:23)씨가 차지했고, 하프코스는 이재식(1:21:54)씨·김미선(1:36:15)씨, 10km는 마성민(34:19)씨와 김채환(41:46)씨, 5km는 Jack Spilman

씨·야다혜씨가 각각 차지했다. 시는 "이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정읍종합경기장~내장교차로~내장산~찬별로 등 주요 구역을 전면 통제했다"며 "이에 따라 다소 불편했을 텐데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력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육상연맹 김관섭 회장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에서 혁명을 기리는 마라톤 대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회에 출전한 전국의 달달이들이 정읍을 사계절 아름다운 고장으로 기억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23일 2019년과 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김용만 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보고회를 주재하고 국소장과 과소장으로 부터 국가예산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시는 두 해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역사기행 자전거 탐방길 조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모두 52건을 발굴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모두 1조5988억원으로, 이중 2019년도 국비 요구액은 988억원이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두 해 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100일 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시는 "타시도 벤치마킹은 물론 중앙부처 예산편성 방향과 정부

역점추진사업 등을 연구 분석한 끝에 이와 같은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사업들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전북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치밀한 논리를 개발,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의 업무보고 등을 분석,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가 발굴에 나서는 등 2019년도 국가사업 발굴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보고회에서 김 시장 권한대행은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해야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 750ml 1ea/12%

GIFT SET 4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 375ml 5ea/13%

GIFT SET 6 | 500ml 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